

사찰음식 대중화·세계화 나서

수원 봉녕사서 10월 8~10일 '2009 대한민국 사찰음식대향연'

햄버거, 피자, 핫도그... 바쁜 생활 속에서 허덕이던 현대인들은 점점 간편한 것을 추구하게 됐다. 간편을 좇는 문화는 인스턴트 음식 등으로 이어져 식습관을 서구화시켰다. 인스턴트화된 가공식품을 섭취한 현대인들은 비만, 고혈압 등 각종 성인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부처님은 "병을 치료하기 이전에 예방하라"고 말했다. 병을 예방하려면 섭생이 중요하며, 그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다.

웰빙 열풍과 함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건강식의 대표격인 채식이 주목받고 있다. 채식음식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라하면 단연 사찰음식. 사찰음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때 사찰음식을 제대로 보고, 먹고, 느낄 수 있는 대규모 문화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최초 사찰음식 대향연

수원 봉녕사(승가대학장 묘엄·사찰음식대향연 조직위원장) 등은 10월 8~10일 수원 봉녕사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2009 대한민국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한다.

사찰음식을 통해 불교문화도 함께 체험하게 될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찰음식 행사로는 유례없이 큰 규모로 프로젝트로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음식을 주제로 문화 콘텐츠를 형성, 사찰음식에 대한 한국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전시·시식·사진전 △다도 및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사찰음식장터 △세미나 △사찰음식 문화축제의 밤-만찬과 공연 등이 펼쳐진다.

사찰음식 체계화 계기 돼야

교계 안팎에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찰음식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사 조직위원장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연구소장)은 "사찰음식은 특별히 추천해 줄만한 음식이 없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계절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음식도 다르며 심지어 시간에 따라서도 그 조리법이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사찰음식의 대중화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찰음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야 한다"며 "사찰음식은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찰음식 DB 구축 중

이번 행사가 있기 전부터 조계종은 사찰음식의 대중화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의 사찰은 조계종만 해도 3000여 곳. 가가호호 집집마다 음식이 다르듯 사찰음식도 절마다 다르다. 또, 조리법과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사찰음식이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와 보급과 대중화에 어려움이 많던 것을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가 5월부터 지역별·사찰별로 DB구축화 작업을 시작했다.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이 아닌 약식이고 선식이며, 정선건강까지 다스리는 수

행식"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찰음식은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 모두가 수행자라고 했다. 음식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몸의 건강은 곧 정신 건강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조계종 문화부는 전통적인 사찰음식의 이론과 조리교육을 실시하는 '사찰음식 소임자교육'을 실시한다. 본말사 사찰음식 소임자를 대상으로 9월 28~29일 1박2일 동안 서울 일원동 비구니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으로 사찰음식이 이러한 체계적 교육과 더불어, DB를 구축해 나간다면 사찰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찰음식 행사에 이러한 올바른 전달이 앞으로 사찰음식의 대중화·세계화를 통한 불교 포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난 4월 '한식 세계화2009'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지원을 약속했듯이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

이은정 기자



금란가사를 형제사찰인 대만 불광산사에 봉헌하기 위해 대웅전으로 입장하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과 30여 학인스님들.

대만 불광산사에 금란가사 봉헌

통도사 9월 9일, 대만 안녕기원하며 전달

'신라 취서산에 금강계단을 쌓고 성보를 모시면 만대를 두고 불, 불, 바람의 삼재(三災)가 없을 것이다.'

문수보살 친견으로 받은 석가모니 가사와 진신사리 등을 통도사 금강계단에 봉안해 신라땅을 편케 한 자장율조(律師)의 뜻일까.

태종 모라꽃으로 인해 50년만의 최대 인명피해를 입은 대만의 안녕을 위해 통도사 금란가사가 전해졌다.

통도사(주지 정우)는 9월 9일 형제사찰인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해 부처님의 금란가사를 봉헌했다.

이번 봉헌된 금란가사는 섣달어왕 6년(636년) 자장율조가 고구 신라로

돌아와 봉헌한 이후 지금까지 보전되던 부처님 가사와 자장율조의 가사를 근본으로 다시 제작한 것이다.

봉헌식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불광산사 주지 심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승가대 30여 스님과 대만 불자들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이번 가사전달에 이어 10월 불광산사 창건 주 성운 스님을 친견하고 태종 모라꽃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미화 2만 달러를 전달했다. 대만에서는 모라꽃으로 인해 5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멀리 더 멀리 보는 이는
집착의 집을 떠나
높이 더 높이 난다.

현대불교 @ 샵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창덕 031)792-6288
연동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역시 및 소장용으로 휴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성물 크기(13.5x9cm) 규격권 23매

영도·상량식, 법사 복장역시, 영기전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레와일 두리알 전문

보이차, 각종 차음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금주의 HAT.....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14선지식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08불자들



뮤지컬 연출가 백재현
19문화

창립 30돌 불교어머니회 김옥분 회장



젊은 어머니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김옥분 회장.

30년간 묵묵히 하나의 원력으로 걸어 온 사람들이 있다. 30년 외길 장인업 S표 간장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국군훈련소 최고(最古) 지원단체인 불교어머니회 이야기다.

1979년 정를 삼보법회로 시작한 불교어머니회는 그동안 훈련소 군장병들의 뒷바라지에 매진해왔다.

훈련소 가는 길이 비포장이던 시절부터 어머니들은 쌀 7~8가마니 분량의 떡을 날라 훈련병들의 배고픔을 달랬다. 매일 평균 5000~6000명, 불교어머니회 어머니들의 손을 거쳐 간 훈련병들은 100만 명을 넘는다.

9월 8일 만난 불교어머니회

김옥분 회장은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시 수계증 제작과 다과 준비 등을 주로 돕고 있다"며 "창립 초기 구치소와 교도소, 경찰병원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현재 훈련소와 군법당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산이 세 번 바뀐다는 30년이 흐르는 동안 불교어머니회에도 애로점은 쌓여갔다.

먹을 것이 없어 떡 하나 먹기 위해 법당을 가득 메웠던 시절에서 먹거리 만으로는 법당에 오지 않는 젊은세대로의 변화가 어머니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훈련병들의 신심고취를 위해 반야심경과 삼귀의, 오계 등이 담긴 신행본편을 선물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크다.

"많은 한 달에 5000명이 넘게 수계를 받는데 개 당 350원하는 불펜도 부담이 크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김 회장은 "젊은 어머니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함께 해 온 어머니들 나이가 50~70대가 돼 수계증 코팅부터 간식포장까지 잔손이 가는 행사준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어머니회는 이러한 어려움도 창립 초기의 발심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50여 회원들은 매일 셋째 주 금요일 국방부 호국원광사 정기법회를 비롯해 월 2회 수계준비

모임, 월 2회 훈련소 수계법회 동참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올해 8월에는 30주년을 맞아 호국원광사 내에 보금자리도 마련했다.

"솔직히 너무 힘들 때는 왜 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훈련병들의 검게 탄 얼굴을 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훈련소에 입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 권에서 눈물 짓던 우리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대신해 오늘도 불교어머니회는 힘차게 뛰고 있다. 젊은 어머니들을 비롯한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010)9474-7267 노덕현 기자

태고 종조의 가르침을 받들고,

5대 종책기조

기호 1번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대은

원융화합으로 한국불교 태고종을 새롭게 일으키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대은 <중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10조에 의한 제24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정책 광고입니다.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께 귀의하오며, 중징에하를 비롯한 중단의 선지식, 원로 대덕스님과 중도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50여 년간 넘게 중무행정과 포교의 소임을 맡아 온 소남은 위로는 중단의 원로스님을 잘 모시고 도반과 후배스님들과 함께 전통중단의 역할과 발전을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身)의 자세로 봉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 24대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5대 종책기조와 10대 실천방향을 통해 중단의 위상을 높이고 전통과 문화, 복지를 구현하여 중단의 화합과 인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 정통중단의 정체성 확립
 - 중지·종풍의 확립으로 수행풍토를 조성하고, 정통성 정립을 위한 의식·의제의 통일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조명을 통해 정통중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 중무행정의 체계적 개선
 - 중앙중무기구의 중무행정에서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책임중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종할 주지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각급 기관장 등의 선거제도 개선으로 모든 중도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민주적인 중무행정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중단재정의 투명성 집행
 - 중단소유 사찰의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총무원 및 각급 중무기구의 감사제도 정립과 태고원, 복지법인 등 신하 유관 법인단체의 운영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선도적 중도교육과 육성
 - 중단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중단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유능한 신진인사의 중무직 배치 등을 통해 중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법사 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통해 육부중으로서의 중단의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 문화복지 실현 기반조성
 - 무형문화재(제50호 영산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중단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강화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복지 중단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지원기반과 연구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중단 승려의 노후를 위한 장기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10대 실천방향
 - 1) 중한·종법의 계승 및 재정립을 통한 정통중단 위상 강화
 - 2) 중단사 재정립을 통한 중단 정체성 확립
 - 3) 중단 전통의제 및 의식 제정과 통일안 마련
 - 4) 총무원 권한의 지방교구중무원 이양으로 지방분권화 추진
 - 5) 사보정재의 관리를 위한 중무행정 개선과 대책마련
 - 6) 사설사원의 자주권 보장과 종할 재산의 투명한 공개 및 공정한 인사
 - 7) 법계제도 개선과 승적확립을 통한 중단 위계질서 조성
 - 8) 기본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육원 활성화
 - 9) 중단 승려의 노후 수행환경 보장을 위한 재정 확보
 - 10) 포교원의 활성화를 통한 대사회 참여 확대

한국불교태고종 제24대 총무원장 후보 대은 합장